

‘사이후이’

<死而後已>

▲박주원 경기도당위원장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출마 했는데 동기는 무엇입니까?
국민의당은 기독교적 폐 양당패권정치를 청산하고, 대안의 정치, 새로운 정치를 이뤄내기 위해 국민들의 연원을 받아 창당을 했다. 지난해 4.13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호남 압승과 다당제 정치의 기반을 이루 어 내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비록 패배를 했지만 700여만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다당제 정치의 기틀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창당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제보 조작사건과 대선 참패의 후유증으로 당은 제대로 서있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다.
작금의 현실은 당의 분열과 존폐를 걱정할 정도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당의 재창당 수준의 혁신’과 ‘2018년 지방선거의 압승’ 그리고 ‘난과된 당을 구하기 위해 진흥당을 해체 나갈 사류구동 한 축의 책임자, 언제라도 당의 혁신을 위해 초록호루라기를 부는 정의로운 조정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압승을 이끌어 갈 적임자’의 역할을 자청하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되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면한 민생과제를 처리하는데 힘난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당과 차별화된 선명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내년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일궈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정당으로서 가진 국민에 대한 민생안정의 책무를 다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2020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고, 그 4년 후, 대선승리를 통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국민의당은 화합하여야 한다.
이대로 분열과 반목을 계속할 수는 없다. 당 전체가 완전히 한마음이 되어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위기의 진흥당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진성능이 좋은 사류

국민의당

정신으로 끝까지 제역할 다할 것

“당의 변혁을 위해 초록호루라기를 부는 정의로운 조정자”

박주원 경기도당위원장이 국민의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8월 27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선언한 박주원 경기도당위원장을 만났다.

“제보조작·대선 참패 후유증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당내 현실 속 재창당 수준의 혁신 이루기 위해 고심 속 최고위원 출마 결심

당이 화합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낮추고 마음 열고과 상시기구 통합 혁신특위 구성 당 혁신 저해 상황 해결 정의로운 조정자 역할 다 할 것

내년 지방선거 승리 통해 당 입지 굳건하게 해야



구동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 엔진의 원활유 역할을 하고 사류의 한 축을 맡아 당이 화합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먼저 낮추고 마음을 열겠다.
둘째, 국민의당은 빠져진 반성과 자기성찰로, 책임 있는 야당으로 국민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서야 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는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혁신을 위해서는 단순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상시기구를 통한 혁신특위 구성으로 빠른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인적 해신을 통해 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당의 혁신을 저해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초록호루라기를 불어 이를 해결해가는 정의로운 조정자의 역할을 다하겠다.
미주한 파도에 물러서지 않고 담담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당이 되도록 하겠다.
셋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통해서 당의 입지를 굳건하게 해야 한다.
민선4기 안산시장을 역임하며 2008년 대한민국

국 최고의 목민관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긴 바 있다.
현재는 경기도 도당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경기도당 10만 전사 만들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
그 결과 최근 3만 명을 넘는 당원을 달성하였으며 지금도 당이 어려운 가운데도 당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당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의 역할은 당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길을 위해 언제라도 초록호루라기를 불 수 있도록 소신이 있어야 한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경기장에서 여당과 다른 야당들과 선명성 경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당의 혁신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제갈량의 출사표에 ‘사이후이死而後已’라는 말이 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살아 있는 한 끝까지 힘 쓴다는 뜻이다.

저 박주원, 그만큼 절박한 심정과 마음가짐으로 최고위원의 역할에 임하겠다.
불가능이란 없다.
국민의당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당원 모두 한마음을 한뜻으로 각오를 다지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그 자리에 내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하겠다. /김진성 기자

박주원 위원장 프로필

- ▲전북고창출신
- ▲민선제 4기 안산시장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2008년 대한민국 목민관 대상 수상
- ▲제1회 섬김이 대상 대통령상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국민의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장
- ▲현)국민의당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 ▲현)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



2017 정부지정 최우수축제
www.firefly.or.kr

제21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The 21st Muju Firefly Festival

2017.8.26(토) ~ 9.3(일)

무주군일원 | 지남공원, 등나무운동장, 남대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2017 무주 남대천 물축제

8.26~27, 9.2~9.3 (4일간)

·주최: 무주군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진안교육지원청 ·한서문화재단 ·무주읍회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회북로 15 ·문의: 063)320-5004-05